

재건의 타자, 마약중독자

— 정비석 소설에 나타난 폭력적 배제와 반공적 동정의 문화정치

선민서*

요약

본 연구는 전후의 재건(再建, Reconstruction) 담론에 의해 수행되는 마약중독자들을 타자화하는 배제와 동정의 문화정치를 규명한다. 타자화 된 아편중독자의 고유한 목소리를 복원하고 해방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상상력은 요원했다.

정비석의 『女罪囚의 手記』(1957)에 등장하는 소설가는 아편중독자를 살해한 아내의 수기를 읽고 사랑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찬사를 그녀에게 보낸다. 서술자는 살인을 당한 마약중독자의 고통보다 그를 죽인 자의 억울함에 동조하며 폭력적 배제를 승인한다. 마약중독자를 재건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한 결과, 살인행위가 서사 내에서 정당화되고 마약중독자는 공감의 영역에서 배척된다.

『人間失格』(1962)에서 마약중독자는 6·25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지 못해 아편중독에 탐닉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전상자(戰傷者)로 재현된다. 이 소설에서 정비석은 아편중독자 전체를 공산화된 적으로 간주하는 당대의 반공주의 담론과는 거리를 둔다. 그러나 아편중독자를 상이군인으로 재현하고 이들에 대한 반공적 동정의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그는 다시금 반공이데올로기로 유인된다. 반공적 배제와 동정 속에서 마약중독자들은 균일한 네이션 형성을 방해하는 대한민국 재건의 타자로 간주되었다.

주제어 : 6·25 전후, 재건 담론, 폭력적 배제, 반공적 동정, 문화정치, 마약중독자, 아편중독자, 정비석, 『女罪囚의 手記』, 『人間失格』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목차

1. '망국병'이 된 전후 마약중독
2. 범죄자가 된 희생양
3. 정비석 소설의 아편중독자 재현에 나타난 (무)의식
4. 비가시화 되는 마약중독자(들)의 목소리

1. '망국병'이 된 전후 마약중독

6·25 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마약중독 환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¹⁾ 코카인이나²⁾ 대마와 같은 천연마약, 베리나루나 세코날과 같은 합성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었고 그 중에서도 앵속화(양귀비)를 재료로 밀조되는 헤로인(헤로인, 히로인)이나 몰핀(모르히네, 모루히네)과 같은 아편은 심각한 중독 문제를 야기했다. 각종 보도를 통해 아편중독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운명을 가늠하는 척도로 제시되었다. 아편은 “망국약”으로³⁾, 아편중독은 “망국병”⁴⁾, “망국지병”으로⁵⁾ 일컬어졌으며 아편중

1) 6·25전쟁 직후에 남한에만 30만, 서울 시내에만 1만여 명의 마약중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麻藥團束問題』, 『경향신문』, 1953.10.3.) 이후 1950년대 중후반에 걸쳐 아편중독자의 숫자가 최소 1만 명을 상회한다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1954년에는 38,000명, 1954년에는 43,000명, 1955년에는 20,000명, 1956년에는 38,750명, 1957년에는 50,000명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제출되었다. (『蔓延一路의阿片病』, 『동아일보』, 1954.6.28. ; 『寒心스러운國民保健』, 『조선일보』, 1954.7.20. ; 『無防備地帶 (6) 阿片中毒』, 『동아일보』, 1955.11.30. ; 『崎嶇한 法案 (10) 麻藥法 二律背反의 超克』, 『경향신문』, 1956.12.1.) 1960년대에 들어서며 4·19로 인해 혼란한 정국을 틈타 아편밀수가 성행하며 마약중독자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제시되기도 했다. (『손도못대는 「阿片地帶」』, 『조선일보』, 1961.3.5.)

2) 국내 마약류의 역사 중 1950-60년대와 관련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했다. (『국내 마약류의 역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antidrug.drugfree.or.kr/page/?mIdx=185>), 최종접속일 : 2023.7.13.)

3) 『麻藥事犯은 근절될수 없나』, 『동아일보』, 1968.4.8.

4) 『蔓延一路의阿片病』, 『동아일보』, 1954.6.28.

5) 『法廷에 나타난麻藥患者』, 『경향신문』, 1954.11.10.

독자들의 경우, “망국적 죄악의 존재”라는⁶⁾ 비난을 받았다. 반면 아편중독 자체는 개인 의지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그로 인해 아편중독 환자들은 “아편쟁이”⁷⁾ 혹은 “아편장이”⁸⁾ 같은 멸칭으로 불리며 “한심한 족속”⁹⁾ “의지박약자”¹⁰⁾로 여겨졌다. 6·25 전후의 재건(再建, Reconstruction) 담론에¹¹⁾ 의해 마약중독자들은 타자화되었다. 그러나 전후의 마약중독자들은 법질서와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실질적인 국가 부재의 상황에서 희생양이기도 했다.

기존의 아편중독자 소재 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민지시기에 생산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했다.¹²⁾ 일제강점기의 아편중독자 표상은 피식민지 문인들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함의를 지닐 수 있었다. 예컨대 “지식인 중독자의 표상”¹³⁾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며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적 함의를 간직했다. 식민지시기의 아편중독자에 대한 묘사는 아편의 유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제국 일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의 의미를

- 6) 「拙劣한麻藥患者의 退治對策」, 『동아일보』, 1959.3.23.
- 7) 「阿片쟁이辯護士逃走」, 『조선일보』, 1956.8.30.
- 8) 「이렇게阿片장이되었다」, 『경향신문』, 1958.3.24.
- 9) 「崎嶇한 法案 (10) 麻藥法 二律背反의 超克」, 『경향신문』, 1956.12.1.
- 10) 「麻藥患者의 實態」, 『경향신문』, 1957.7.27.
- 11) 해방 이후 남한사회에서 재건 담론은 정치사회적, 문화적 과급력을 지닌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이하나, 『대한민국, 재건의 시대(1948-1968)』, 푸른역사, 2013. ; 이하나, 『국가와 영화 : 1950-60년대 대한민국의 문화재건과 영화』, 해안, 2013 참고.) 본 연구는 당대의 문화텍스트로서의 전후 문학 작품 역시 재건 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 12) 염상섭의 식민지시기 장편 『사랑과 죄』에서 아편중독자가 타자화되는 양상으로부터 일제의 아편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은밀한 동조를 독해한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 김학균, 『『사랑과 죄』에 나타난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국제어문』 54, 국제어문학회, 2012, 365-387면.
- 13) 김주리, 「주의자와 중독자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지식인 중독자의 표상」, 『인문학논총』 43,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31면. 식민지시기의 다양한 아편 중독자 표상을 분석한 연구로 다음 논문들을 참조했다. (김주리, 「일제강점기 소설 속 하층민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 모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87-216면. ; 김주리, 「아편굴의 조선인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아편 밀매업자 표상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151-179면. ; 김주리, 「주의자와 중독자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지식인 중독자의 표상」, 『인문학논총』 43,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31-60면.)

내포할 수 있었다. 또한 아편중독의 문제는 “일제 말기 식민지의 육체와 정신이 봉착하고 탐구한 본질적인 풍속”이었으므로¹⁴⁾ 당대 소설의 아편중독자 표상은 “대동아공영”과 “왕도낙토” 이념에 의해 국민화 된 작가의 정신 상태를 드러내기도 했다.

선행연구들은 전후의 아편중독자 소재 소설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 전후의 담론장에서 아편중독자가 된다는 것은 재건의 서사에서 낙오되었다는 것을 뜻했다. 전후에 마약중독자를 타자화하는 방식은 국가의 재건 기획에 부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전후 아편중독자에 대한 재현은 전란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 대한 복구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방해하는 혹은 지연시키는 아편중독자를 타자화하는 시선을 동반하기 쉬웠다.

전후에 마약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마약중독과 마약중독자 재현에 따른 문제는 상세히 검토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다행히 해방 이후와 정부수립 초기의 마약중독 문제를 연구한 사례가 있어¹⁵⁾ 전후의 마약중독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중독 문제를 전후 재건 담론과 결부시켜 파악하기 위해서는 1950-60년대의 역사적 사료와 문학 텍스트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1950-60년대의 사료를 중심으로 전후의 마약 문제를 개괄하고, 마약중독자에 관해 문제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정비석의¹⁶⁾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재건 담론의 문화정치를¹⁷⁾ 규명하고자

14)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 현경준의 「유맹」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사이(S AI)』 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287면.

15) 조석연, 「해방 이후의 마약문제와 사회적 인식 - 해방과 정부수립 초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08, 한국사학회, 2012, 301-342면.

16) 정비석은 1911년 5월 21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한 월남 작가였다.(정비석의 생애사에 대한 설명은 ‘정비석 저, 김현주 편, 『정비석 문학 선집 1 : 단편소설』, 소명출판, 2013, 580-584면.’에 수록된 작가 연보를 주로 참고했다.) 그는 1937년에 단편소설 「성황당」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소설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51년에 그는 “국제펜클럽 한국 본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57년에는 “제29차 국제펜클럽 대회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위

한다.

전후에 발표된 소설들 중에서도 정비석의 마약중독자를 소재로 다룬 작품들은 재건 담론에 대한 그의 인식을 확인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정비석의 소설에 나타나는 당대 국가 재건 담론의 영향은 그의 대표작인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¹⁸⁾ 또한 그의 작품에서 재건에의 욕망으로 인해 혐오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견해 역시 『민주어죽』을 중심으

의 글, 582면.) “자유 중국 정부 초청 방화 문화 사절로 송지영, 조병화, 주요한, 김홍호, 이무영 등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다.

정비석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가였다. 특히 그는 1954년에 “장편소설 『자유부인』(전215회)를 『서울신문』에 연재”하며(위의 글, 581면.)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대학교수를 폄하한다는 비판을 서울대 황산덕 교수로부터 받기도 했다.(추선진, 『해설 : ‘자유’를 얻지 못한 자유부인』, 정비석 저, 추선진 편, 『자유부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3, 717면.)

정비석의 손자인 정인관의 회고에 따르면, 고향에서 대지주 집안 출신이었으나 북한의 토지 개혁으로 인해 토지와 주거지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정비석은 “신변의 불안”을(정인관, 「기록과 기억을 통한 만남, 나의 할아버지 정비석」, 정비석 저, 김현주 편, 『정비석 문학 선집 1 : 단편소설』, 소명출판, 2013, 571면.) 느껴 월남했다. 그가 전후 남한에서 반공 담론의 생산에 앞장섰던 원인으로(이시은, 앞의 글, 24면.) 생애사적 조건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전시에 그는 육군중군작가단의 일원으로 『전선문학』 간행에 참여했다.(김윤식, 「6.25전쟁문학-세대론의 시각」, 문학사와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17-18면.(장은영, 「전쟁문학론의 전개와 폭력의 내면화 - 식민지 말과 한국전쟁기 문학론을 중심으로 -」, 『우리文學研究』 66, 우리문화회, 2020, 388면에서 재인용.))

- 17) 본 연구는 텍스트에 내재된 “지배/종속/전복”의 관계를 독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정치학(Cultural Politics)”의(한국문학평론가협회, 『인문학용어대사전』, 국학자료원, 2018, 637면.) 기본적인 시각을 따른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생산물을 지배/종속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일레로 그람시는 지배 집단이 “자신의 지적·도덕적·정치적 지배 장치(메커니즘)를 수립”하는(안토니오 그람시 저, 이상훈 역, 『그람시의 옥중수고Ⅱ』, 거름, 1993, 80면.) 과정에서 “지식인 계층을 지니고 있거나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논구한 바 있다. 문학 텍스트 역시 당대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헤게모니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문화와 문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기여”를(레이먼드 윌리엄스 저, 박만준 역,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146면.) 주장하며 문학텍스트를 문화정치학적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18)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 -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2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139-165면.

로 제출된 바 있다.¹⁹⁾ 정비석의 텍스트에는 당대 재건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드러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아직 학계에서 재건의 타자로 본격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던 마약중독자 표상이 나타나는 「女罪囚의 手記와」²⁰⁾ 『人間失格』을²¹⁾ 중심으로 정비석 소설에 나타나는 전후 재건의 문화정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정비석의 소설은 당대의 재건 담론에 지배를 받았던 종속된 존재로서의 아편중독자의 문제를 문화정치학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적 텍스트다. 특히 「女罪囚의 手記」는 마약중독자들을 향한 폭력적 배제를 수행함으로써 재건 공동체로부터 이들을 제거하려는 (무)의식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김동리, 안수길, 오영수, 조연현, 최정희가 편집한 『韓國代表短篇文學全集』(1975)과²²⁾ 韓國펜클럽이 편집한 『사랑 그眞實과 孤獨』(1978)에²³⁾ 수록되며 정전화 되었지만, 실상 이 텍스트에서 마약중독자를 향한 폭력적 배제가 정당화된다. 또한 『人間失格』에서 마약중독자를 향해 표명되는 동정의²⁴⁾ 이면에서도 재건 담론의 지배력이 포

19) 김주리, 「1950년대 혐오의 서사와 헤레토포피아의 기획 - 정비석의 『민주어족』 고찰」, 『人文論叢』 78(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293-327면.

20) 정비석의 「女罪囚의 手記」는 ‘정비석, 『鄭飛石短篇集 : 사랑하는 사람들, 女苑社, 1957.』에 수록되어 있다. 이 소설은 ‘김동리 외 4명 편, 『韓國代表短篇文學全集 18 : 現役作家篇』, 正韓出版社, 1975.』에 정비석의 대표작으로 수록되었다. 韓國펜클럽 편, 『사랑 그眞實과 孤獨』, 韓振出版社, 1978.』에도 이 작품이 실려 있다. 본고에서는 『鄭飛石短篇集 : 사랑하는 사람들』에 수록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인용했다.

21) 정비석, 『人間失格』, 正音社, 1962.

22) 김동리 외 4명 편, 『韓國代表短篇文學全集 18 : 現役作家篇』, 正韓出版社, 1975.

23) 韓國펜클럽 편, 『사랑 그眞實과 孤獨』, 韓振出版社, 1978.

24) 동정은 “문학 영역에 나타난 감성의 특질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박숙자, 「근대국가의 파토스, 공감과 동정 - 이광수의 『무정』, 이명호 외 8명, 『감정의 지도 그리기 : 근대/후기 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 소명출판, 2015, 45면. 각주 3번에서 재인용) 개념으로 발굴되었다. 동정의 감정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식민지 시기 한국 근대소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배치하고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손유경, 『고통과 동정 :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2012, 22면.) 동정이라는 윤리적 감각 이면에서 작동하는 문화정치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전후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 역시 획득할 수 있다.

착된다.

『人間失格』은 ‘동정’이 재건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1950-60년대의 집합적인 “시대 감정”이라는²⁵⁾ 점을 드러낸다. 이 소설에서 ‘동정’은 마약중독자들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승인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행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동정심은 사회적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의지가 기능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저항적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축소시킨 채 그를 구호와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든다는 한계를 지닌다.²⁶⁾ 재건론에 의해 구성되는 동정심은 “억압적 관용”에²⁷⁾ 가깝다. 마르크제는 “억압적인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 위한 “혁명적 폭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급진정치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억압적인 관용”과 “해방을 추구하는 차별적인 관용”을 구분했다.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은²⁸⁾ “기존의 계급 구조를 유지”시키고 승인하게 한다는 한계점을 노정한다. 혐오와 동정심의 상관 관계를 연구한 응가이(Ngai)는 ‘자비심(benevolence)’ 또는 ‘연민(pity)’과 같은 감정이 “사회적으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빈민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정이 빅토리아 시대와 그 이후에 달라지는 양상을 포착하며 “느낌의 구조(Structures of Feeling)”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 (Raymond Williams, *Maxism and Litera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134.) 본고에서는 동정의 감정이 전후의 재건 담론과 결부되어 변모하는 양상에 주목한다. 특히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감정의 구조는 “전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인식론(an epistemology for gaining a comprehension of a whole society)”으로(Raymond Williams, *Politics and Letters : Interviews with New Left Review*, London : New Left Books, 1979, p.164. John Higgins, *Raymond Williams : Literature, Marxism and Cultural materialism*, London : Routledge, 1999, p.44.에서 재인용.) 기능할 수 있다.

25) 이명호, 「감정의 문화정치」, 이명호 외, 앞의 책, 20면.

26)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70-71면.

27) 임경석, 「마르크제의 유토피아적 인간해방」, 『시민인문학』 『시민인문학』 28,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212면.

28) Sianne Ngai, *Ugly Feelings*,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340.

로 열등하다고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혐오감을 관리하는 방법(a way of managing aversion to an object perceived as socially inferior)²⁹⁾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人間失格』에서 마약중독자를 제대군인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반공적 동정’을³⁰⁾ 재생산하는 데에 복무한다. 마약중독자가 제대군인인 한에서 포용되는 것은 사실상 마약중독자에 대한 타자화에 기여한다. 해방기 정비석 소설에서 “국민국가를 상상하는 방식이 균질적인 국민의 창출과, 그 핵심을 민족이라는 혈통 중심적 사고에 두고”³¹⁾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후 재건 과정에서 상상된 네이션의 범주에 마약중독자들은 포섭되기 어려웠다. 정비석의 「女罪囚의 手記」와 『人間失格』은 재건 기획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의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마약중독자들을 “희생양”으로³²⁾ 만드는 대한민국 건국 신화를 위한 “박해의 텍스트(textes de persécution)”로³³⁾ 기능할 위험성이 있었다.

29) Ibid., p.346.

30)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동정이 냉전 이후의 텍스트에서 변모하는 양상은 “냉전적 동정”으로 개념화된 바 있다. Ellwood Wiggins, "Cold War Compassion : The Politics of Pity in Tom Stoppard's Neutral Ground and Heiner Müller's Philoktet," *Literatur für Leser*, 4-15, 2015, p.269. 냉전 텍스트에서 동정은 냉전적 세계질서가 고착화되리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감정으로 기능한다. 상이군인에 대한 동정심은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인 심리를 전환해 적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이데올로기화된 감정일 수 있다. 희생자가 된 상이군인에 대한 동정적 여론이 커질수록 반공적 인식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고에서는 전후 남한에서 전상을 입은 상이군인을 향하는 동정심이 반공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복무한다는 점에 착안해 반공주의적 인식을 고조시키는 집단적 동정의 감정을 일컬어 ‘반공적 동정’이라 명명한다.

31) 김현주, 「정비석의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환멸의 정조와 낭만적 탈주」, 정비석 저, 김현주 편, 『정비석 문학 선집 3 : 단편소설』, 소명출판, 2013, 521면.

32) 르네 지라르는 신화나 설화에 내재한 희생양 메커니즘을 발견하며 “모든 문화 질서 속에서 ‘희생양’의 역할을 찾아내”어(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2012), 334면.)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33) 김진식, 「웁긴이 후기」, 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2012), 349면.

2. 범죄자가 된 희생양

1950-60년대에 걸쳐 마약중독자들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 걸쳐 분포했고³⁴⁾ 인텔리나 유명인사, 정치인 역시 존재했다. 아편중독자 중 일부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양공주 혹은 양부인 등으로 불렸던 미군 위안부나 윤락여성³⁵⁾, 혹은 고아나 구두닥이소년과 같은 나이 어린 부랑아들³⁶⁾, 혹은 문둥병 환자들이었다.³⁷⁾ 특히 사회의 복지체계로부터 소외된 약자들의 중독은 사회적 몰락의 징표였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선택했다는 세간의 인식은 이들에 대한 구호나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아편굴(아편소굴, 아편밀매굴)은 서울 태평동 서소문, 광희동, 종로4가 일대, 돈의동, 오장동, 영등포, 대구 남산동, 칠성동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었다.³⁸⁾ 특히 아편장수들이 빈민굴과 같은 빈민 거주지역이나 사창굴과 같은 밀매금지지역에서 마약소굴(마약판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약자들이 아편을 접하는 경우도 많았다.³⁹⁾ 그러나 아편 밀매에⁴⁰⁾ 대한 검거가 주로 빈민 밀집촌인 바라크촌이나 사창굴을 급습하는 방식

34) 「根絶望되는阿片患者」, 『동아일보』, 1954.10.21.

35) 「麻藥患者의實態」, 『경향신문』, 1957.7.27.

36) 「浮浪兒가保護要請」, 『조선일보』, 1960.6.18.

37) 「버림받은사람들 (下) 癩病患者收容所相愛園을찾아」, 『조선일보』, 1954.10.5. ; 「麻藥密賣者를검거 中毒患者들도함께」, 『동아일보』, 1960.11.1.

38) 「無防備地帶 (6) 阿片中毒」, 『동아일보』, 1955.11.30. ; 「阿片巢窟急襲 校帽峯高校生等 中毒者30名摘獲」, 『동아일보』, 1957.8.25. ; 「中毒者37名 送廳」, 『경향신문』, 1958.5.2. ; 「麻醉強盜 阿片中毒者의知能犯罪」, 『동아일보』, 1959.2.24. ; 「서울의癌 麻藥窟」, 『조선일보』, 1960.11.13. ; 「都心地處盛業 名物인阿片窟」, 『동아일보』, 1956.5.30. ; 「麻藥密賣者를검거 中毒患者들도함께」, 『동아일보』, 1960.11.1.

39) 「손도못대는 「阿片地帶」」, 『조선일보』, 1961.3.5.

40) 「이것도 仁術? 阿片密造 醫口 被檢(피검)」, 『부산일보』, 1951.5.21.,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510521000021>), 최종검색일 : 2023.7.14. 아편은 “一그람”에 “六萬五千圓으로써 賣渡”되기도 해 빈민들이 구매하기 쉬운 가격은 아니었다.

으로 이루어졌기에 아편중독자들 중에서도 빈민이나 매춘부들은 상대적으로 검거되거나 처벌 받기 쉬웠다.⁴¹⁾

6·25전쟁은 아편중독자를 양산하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의료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전상(戰傷)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이들은 마약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⁴²⁾ 아편중독자들 중 상당수는 신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아편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⁴³⁾ 전란으로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⁴⁴⁾ 혹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 처럼⁴⁵⁾ 가족과 사별한 고통을 잊기 위해 아편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전란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부랑아가 되어 아편중독으로 유인되었다.⁴⁶⁾ 부랑소년들은 불량배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신고식의 일환으로 아편을 흡입하고 중독되었다.⁴⁷⁾

상당수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아편중독자가 되었다. 보건의료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한국에서 무허가 병원의 무면허 의사가 진통제로 가장해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빈번했다.⁴⁸⁾ 시중의 약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가장한 마약이 판매되기 일쑤였다.⁴⁹⁾ 제약회사에서 마약성분이 포

41) 「亡國病에 醉한 60名」, 『부산일보』, 1952.8.26.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520826000023>), 최종검색일 : 2023.7.14.

42) 「蔓延一路의阿片病」, 『동아일보』, 1954.6.28.

43) 「身病이七五% 麻藥中毒者의 生態」, 『경향신문』, 1955.7.13.

44) 「乙未의 落書 (4)」, 『동아일보』, 1955.12.25. ; 「豫編이나 시켜주」, 『조선일보』, 1959.8.14.

45) 「氣流 밑의 陽地 麻藥中毒者治療所篇」, 『경향신문』, 1957.7.29.

46) 「浮浪兒가保護要請」, 『조선일보』, 1960.6.18.

47) 「阿片中毒少年 날치기 團打盡」, 『동아일보』, 1959.8.18. ; 「서울의癌 麻藥窟」, 『조선일보』, 1960.11.13.

48) 「蔓延一路의阿片病」, 『동아일보』, 1954.6.28. ; 「藥주고病주는脫線仁術 醫師가麻藥闇賣」, 『경향신문』, 1953.8.31. ; 「돌보기」, 『경향신문』, 1955.4.23. ; 「麻藥濫用으로 醫師와是非」, 『조선일보』, 1957.11.14.

49) 「微溫的인保健行政에警鐘」, 『경향신문』, 1954.11.27. ; 「麻藥을混合 假짜注射藥大量市중에」, 『동아일보』, 1959.10.25. ; 「秘密栽培 양귀비 모조리摘發」, 『동아일보』, 1960.1.26. ; 「麻藥事犯은 근절될수 없나」, 『동아일보』, 1968.4.8.

함된 것을 속이고 약품을 제조 및 판매해 마약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⁵⁰⁾ 그러나 보건사회부와 시경이 합동으로 구성한 마약취체반의 인원과 예산은 부족했다.⁵¹⁾ 심지어 사회고위층이 마약조직과 연루되어 취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마약 취급 현장이 아니라며 단속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⁵²⁾

아편중독자들의 말로는 대체로 비참했다. 아편중독자의 경우 설령 직업이 있었다 해도 실직해 무직자가 되곤 했다.⁵³⁾ 설령 재산이 있었던 경우라도 가산을 탕진했다.⁵⁴⁾ 마약중독자였던 사람은 각종 취업에서 제한을 받았다. 공무원 채용에서는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으로⁵⁵⁾ “마약중독자” 여부가 제시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식을 하며 간신히 생존했다.⁵⁶⁾ 일부는 중독에 따른 금단증세에 시달리며 아편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다. 절도범,⁵⁷⁾ 강도범이⁵⁸⁾ 되기도 했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⁵⁹⁾ 폭력조직에 연루되었다⁶⁰⁾. 남성의 경우 탈영을 했고⁶¹⁾ 여성의 경우는 밀매음에 빠졌다.⁶²⁾ 아편중독을 비판하며 자살을 기도하거나⁶³⁾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흔했다. 마약 과용으로 인해 사망하거

50) 「麻藥事犯은 民族에대한 罪惡이다」, 『동아일보』, 1965.5.27.

51) 「無防備地帶 (6) 阿片中毒」, 『동아일보』, 1955.11.30.

52) 「阿片쟁이家庭悲劇」, 『동아일보』, 1958.9.24.

53) 「七月에八一名麻藥患者檢舉」, 『조선일보』, 1958.8.10. ; 「도망간辯護士 資格을取消」, 『조선일보』, 1956.9.1. ; 「휴지동」, 『동아일보』, 1959.2.5.

54) 「麻藥이怨讐였다」, 『조선일보』, 1954.5.12.

55) 「公務員採用 「身檢」 規程」, 『조선일보』, 1963.10.23.

56) 「세군데서竊盜질 阿片中毒된女人」, 『동아일보』, 1959.11.25. ; 「第三의 社會 (5) 完全乞食派」, 『동아일보』, 1961.2.9.

57) 「阿片맞고美船員絶命」, 『경향신문』, 1954.12.17.

58) 「麻醉強盜 阿片中毒者의知能犯罪」, 『동아일보』, 1959.2.24.

59) 「어느少年이告白한 麻藥中毒의經路」, 『조선일보』, 1959.7.12.

60) 「「리스트」 作成掃蕩戰強行」, 『조선일보』, 1961.5.13.

61) 「豫編이나 시켜주」, 『조선일보』, 1959.8.14.

62) 「患者團束만으론안없이진다 麻藥窟掃蕩과 密輸防止가先務」, 『경향신문』, 1958.3.24. ; 「麻藥中毒10名檢舉 洋公主部落을急襲」, 『동아일보』, 1958.8.9.

나⁶⁴⁾ 변사체로 발견되거나⁶⁵⁾ 유기되었다.⁶⁶⁾

아편중독자의 가족들 역시 고통을 겪었다. 어린 자식들은 방치되었고⁶⁷⁾ 가족 중 일부는 아편중독자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했다.⁶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편중독자들은 가정파탄의 주범이라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국가재건을 위해 일차적으로 가정재건을 이룩해야 한다는 구호가 연발되던 시점에 아편중독자들은 재건을 방해하는 군상으로 치부되기 쉬웠다.

마약중독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이들을 치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에 따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마약중독자치료소 5개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인원은 마약중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시설 역시 열악했다.⁶⁹⁾ 관리 인력이 적어 1950-60년대에 걸쳐 치료소를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⁷⁰⁾ 중독자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 검거된 이후 유치장에서 사망하거나 치료소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 유엔마약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960년까지도 한국의 마약중독자치료소들은 장기수용을 할 수 없었다.⁷¹⁾ 단기 치료만을 받고 치료소에서 퇴소한 환자들은 재중독되었다. 아편중독자의 퇴소 이후 다른 아편중독자로부터 격리해야 하고,⁷²⁾ 이들의 자활을 위해 직업을 마련해주고⁷³⁾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63) 「中毒됨을悲觀」, 『조선일보』, 1955.9.26. ; 「自殺未遂」, 『조선일보』, 1956.6.14. ; 「醫師가自殺未遂」, 『조선일보』, 1956.12.3.

64) 「幻覺劑 먹고 도둑질」, 『경향신문』, 1968.4.16.

65) 「變死 하루에 八件」, 『조선일보』, 1956.10.15.

66) 「阿片맛고 쓰러진 「中毒者」 개천에遺棄變死」. 『조선일보』, 1963.4.28.

67) 「麻藥中毒으로 家産을蕩盡」, 『조선일보』, 1958.7.11.

68) 「阿片장이엄마 고쳐주오」, 『경향신문』, 1966.8.25.

69) 「麻藥患者收容不振」, 『조선일보』, 1957.4.25.

70) 「麻藥中毒者 收容所서脫走騷動」, 『경향신문』, 1958.4.25. ; 「麻藥患者 11名集團脫出」, 『조선일보』, 1960.3.12.

71) 「亡國病者 없어지려나?」, 『조선일보』, 1960.1.26.

72) 「拙劣한麻藥患者의 退治對策」, 『동아일보』, 1959.3.23.

제출되었지만⁷⁴⁾ 문제해결은 더뎠다. 힘겨운 치료 과정을 거쳐 증세가 호전된 마약중독자들마저 퇴소 이후의 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재중독됐다.⁷⁵⁾

전후 사회는 아편중독자와 관련한 뉴스를 생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전파했다. 그러나 미디어의 보도 방식 역시 이들을 타자화했다.⁷⁶⁾ 마약중독자에 대한 신문 매체의 보도는 이들의 범죄 사실에 집중되곤 했다.⁷⁷⁾ 이러한 보도 방식은 마약중독자들을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만들었다. 특히 마약중독자에 대한 보도에서 이들을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⁷⁸⁾ 마약법 및 보건 정책,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에 따른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전후 남한사회에서 마약중독자들은 “민족의 쯤”이라는⁷⁹⁾ 비난을 받으며 불결한 자들로 인식되었다. 아편중독자들은 전염병 감염원으로 간주

73) 「患者團束만으론안없어진다 麻藥窟掃蕩과 密輸防止가先務」, 『경향신문』, 1958.3.24.

74) 「麻藥患者의實態」, 『경향신문』, 1957.7.27.

75) 이춘애, 「매독을 합병한 마약중독자 - 증상, 치료, 간호 -」, 『대한간호』 3(2), 대한간호협회, 1964, 74면.

76) 마약중독자의 갱생담은 마약중독의 문제를 개인의 초인적인 의지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31세의 미망인 약제사가 1개월 간 치료를 받은 후 “마약 중독성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氣流 밑의 陽地 麻藥中毒者治療所篇), 『경향신문』, 1957.7.29.) “명랑하고 씩씩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소식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되기 쉬웠다. 과거 대령이었던 제대군인이 아편중독자가 되었다 서울시 마약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후에 “초인적인 인내력”으로(「乙未의 落書 (4)」, 『동아일보』, 1955.12.25.) “건전한 인간으로서 재생”하고 “모처에서 조용한 정양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치료 공간을 얻지 못하거나 되돌아갈 겨자가 없어 재중독되는 중독자들의 의지 부족을 탓하는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았다.

77) 「굶주린 阿片쟁이의 作亂 어린이 옷을 掠奪」, 『부산일보』, 1952.2.6. ; 「阿片中毒者가 道廳?盜行脚」, 『부산일보』, 1952.7.17.

78) 예컨대 아편중독자 여성이 남성을 살해했다는 소식은 「韓國판 ‘나나’(殘忍한 男性의 敵)」, 『부산일보』, 1958.11.22.,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581122000046>>, 최종접속일 : 2023.7.13.) 사건으로 불리며 인구에 회자되었다.

79) 「藥주고病주는脫線仁術 醫師가麻藥闇賣」, 『경향신문』, 1953.8.31.

되어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했다.⁸⁰⁾ 그 결과 아편중독자들은 위생과 건강을 해치는 오염의 근원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대중에게 각인되기 쉬웠다.⁸¹⁾

아편중독 문제는 당대의 반공 담론과 결부되어 심각한 보안 이슈로 인식되었다. 아편중독자들은 반공사회 형성을 통한 조국재건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로 치부되었다. 마약 밀수의 경로가 중공이나 북한 피뢰와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횡행했다.⁸²⁾ 남과 간첩들의 첩보비, 즉 대남공작 자금으로 마약을 밀조한다는 소식은 남한 사람들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했다.⁸³⁾ “마약을 전파시켜서 자유진영의 청소년에 어떠한 그 전투능력을

80) 일례로 1962년에 마약중독자들은 감염병의 한 종류인 말라리아 4일열을 전염시킬지도 모르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마약중독자치료소에서 말라리아의 한 종류인 4일열 말라리아가 발병했다는 보건사회부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국에 처음 侵入한 4日熱 『말라리아』란?』, 『경향신문』, 1962.7.16. ; 『새流行病 四日熱말라리아』, 『동아일보』, 1962.7.17.) 언론에서는 4일열 말라리아의 감염 가능성을 경계할 뿐, 실질적으로 아편중독자들이 감염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보도하지는 않았다. 후일 의학계의 연구 결과(당시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衛生蟲學教室에서 “마라리아 感染中毒者의 一般人에 對한 四日熱 또는 熱帶熱傳播源으로서의 可能性 與否”가 탐색되었다. 徐高丙·林漢鍾, 『서울市內 麻藥中毒者間에 流行하는 熱帶熱 및 四日熱』, 『서울대학교 論文集』 8, 서울대학교, 1959, 218면.) “감염된 중독자로부터 흰날모기에 의해 일반 인구에게 4차 말라리아가 간접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위의 글, 213면.) 결과가 제출되었지만, 이러한 사실은 대중에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81) 그러면서도 아편중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었다. 의료공백 상태에 처한 빈민들은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아편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았지만, 마약이 불법화되지만 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독되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하다 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다. “마라리아 感染中毒者는 全部 ‘헤로인’을 靜脈으로 注射한 者로서 이들 사이에 感染이 不消毒注射器의 共同使用에 基因하는 것을 再確認하였다는(위의 글, 218면.) 의학계의 발표는 일부 감염병의 감염원이 마약중독자라는 점을 확증할 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통찰까지 전달하지 못했다. 감염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남한 사회의 보건의료 체계 미비였지만, 마약중독자들은 전염병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될 뿐 부실한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로 존중받지 못했다.

82) 『橫說豎說』, 『동아일보』, 1955.1.26.

83) “中共이 오늘날 自己 自身の 利益을 爲하여 敗家亡身의 癩藥을 東南亞 一대에 販賣”하는 “非人道的 謀利行爲”를 행하고 있다며 반공 이데올로그들은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麻藥團束에는 密輸路封鎖만이捷徑』, 『경향신문』, 1958.3.26. ; 『서울의癌 癩藥窟』, 『조선일보』,

찾다가 마멸시켜 버릴려고 하는 무서운 중국”의⁸⁴⁾ 이미지가 난무했다. “공산집단에서 자유진영에 대해서 마약을 가지고 배후공격”을 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다.⁸⁵⁾ 그로 인해 때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쉬웠을 마약중독에 관한 정신의학계의 연구에서 당대의 반공 담론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국가이며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중공과 인도에 비해 한국의 마약중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지만, 이러한 논의는 친공산주의 성향을 지닌 중공과 인도를 배격하는 내적 논리에 따른 것일 수 있었다.⁸⁶⁾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解放後 自由黨政權下에서의 蔓延도 一時的인 現象”이라는 결론으로 귀착되며 마약중독 문제를 의학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축소시켰다는 점에 있다. 반공적 인식으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결과,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의학적 해결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⁸⁷⁾

1960년대에는 정신위생학이 널리 보급되고 정신위생 담론이 조성되며 마약중독자들은 “정신이상”자로⁸⁸⁾ 분류되기 시작했다. “약물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간주하는 시각이 일반화되었다. 그에 따라 아편중독을 “정신병”이지⁸⁹⁾ “유전”으로 간주하는 시선 역시 본격화되었다.

1960.11.13.

84) 제3대 국회 제24회 제1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7.4.2., 23면.

85) 金昌銑, 「韓國麻藥中毒者의 史的考察」, 『신경정신의학』 2(1),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63, 73면.

86) “儒敎로서의 民心의 平安 道義心의 昂揚 絶對的인 權勢에 對한 屈從 等等으로 오랜 歲月間에 傳統을 지닌 民族意識을 構成”하고(위의 글, 74면.) “韓國에서 特有한 基督敎的 影響에서 받은 internalized moral이나 그에서 받은 racial ideas of social value가 racial ego를 prohibition”한 결과 인도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중독에 걸린 사람이 적다는 논의 역시 제출되었다. 당대 정신의학에 따른 마약중독에 관한 연구는 당대의 도의재건 담론에 부응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었다.

87) 「麻藥犯 一齊 소탕」, 『경향신문』, 1962.2.4. 그 외에도 1960년대에 마약사범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될 당시에는 마약 조직이 공산당 조직과 유사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88) 「精神病의種類」, 『동아일보』, 1963.2.19.

“마약중독으로 인해서 백치가 태어난다”는 풍문은 과학 지식으로 대중에 전파되었다. 그 결과 마약중독자들은 자녀를 “정신병환자”로⁹⁰⁾ 만들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았다.⁹¹⁾ 마약중독자들은 “민족우생”에⁹²⁾ 방해가 되는 훼방꾼이라며 우생학적 견지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되기 쉬웠다. 결국 당대의 정신위생 담론에 의해서도 마약중독자들은 “명랑사회”⁹³⁾ 건설의 타자로 인식되었다.⁹⁴⁾

마약중독은 이들 자신의 “맹목적 습관적인 충동” 탓으로 발생한 “도시 사회병리”로⁹⁵⁾ 간주될 뿐이었다. 마약중독자 중 상당수가 “時間이 經過하였다 ‘無聊하다’ ‘마음이 安靜되지 않는다”와⁹⁶⁾ 같은 이유에서 마약을

89) 「精神衛生이란 무엇인가」, 『경향신문』, 1960.11.21.

90) 「健康診斷 (完) 精神衛生」, 『동아일보』, 1961.5.22.

91) 그 결과 마약중독자 자신도 “**癩藥中毒者는 精神病者다**라고 뚜렷이 말”하는(李海英, 「光明 찾는 구멍뚫린 人間들 : 癩藥中毒者에 대한 實態調査報告」, 『세대』 제2권 통권15호(1964년 8월호), 世代社, 1968, 249면.) 자기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92) 「橫說豎說」, 『동아일보』, 1955.1.26.

93) 「**癩藥中毒실태 調査**」, 『경향신문』, 1962.12.10.

94) 마약중독자를 정신병 환자로 인식하는 것은 정신의학의 “초권력(sur-pouvoir)”을(미셸 푸코 지, 오트르망 역, 『정신의학의 권력』, 난장, 2014, 205면.) 실현하는 절차이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에서 “정신병환자의 발작 범죄”를(임지연, 「1960-70년대 한국 정신의학 담론 연구 - 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 『의사학』 56, 대한의사학회, 2017, 182면.) 우려하는 사람들은 “마약 및 알콜성 중독 6만 이상”이라는 “정신신경학회의 진단” 내용을 소개했고, 정신위생법안 마련을 통해 “정신병환자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치료 또는 예방토록함으로써 사회적응과 갱생을 효율성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코의 관점을 참조할 때 이러한 견해는 정신의학에 따른 규율권력과 미시권력을 실현시키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했다. 또한 “모든 범죄, 잔인, 부정, 방종, 나태, 낙오, 실망 등의 징조가 정신이상에서 오는 것”이므로(「精神保健機構를設立」, 『동아일보』, 1959.12.9.) “국가와 사회 가정 등이 집단적으로 정신위생에 대한 지식의 보급”에 힘쓰고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국가의 부강을 목적으로 정신위생학”을(임지연, 「1960-70년대 한국 정신의학 담론 연구 - 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 『의사학』 56, 대한의사학회, 2017, 183면.) 주창한 것에 가까웠다. 당대의 재건 이데올로그들은 정신의학적 권력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마약중독자들의 타자화에 앞장섰다.

95) 李海英, 앞의 글, 238면.

96) 위의 글, 249면.

흡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당대의 재건 이데올로그들은 마약중독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기보다 마약중독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화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일례로 일부 국회의원은 성혼한 마약중독자를 거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제출했다.⁹⁷⁾ “앞으로 이 結婚한 者에 對해서는 手術을 敢行할 計劃”이라는 논의가 국회 회의 상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었다.⁹⁸⁾ 마약중독자들의 자녀를 집단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⁹⁹⁾ 이처럼 마약중독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 자녀들의 신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약중독자들은 남한사회에서 한층 소외감을 느끼기 쉬웠다.

아편중독자들은 불법적인 마약 거래에 따른 희생자나 피해자로 인식되기보다 마약 척결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자로 인식되었다. 아편(양속) 밀

97) 제6대 국회 제40회 제11차,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1964.2.22., 3면.

98) 이러한 재건 이데올로그들의 사고방식은 우생학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전체 사회를 위해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사회에 더 좋”으며 (F. Y. Edgeworth, *Mathematical Psychics*, London : Kegan Paul, 1881, pp.70-77. ; Peart and Levy, *The “Vanity of the Philosopher” : From Equality to Hierarchy in Post-Classical Economic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pp.226-30.(Eric Schliesser, *Sympathy : A History*, ed. by Eric Schliesser.,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358.에서 재인용.)) 상위 계층을 위해 하위 계층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당대의 재건 담론에도 투영되어 있었다. 다윈적인 진화론적 사고에 동조한 재건 이데올로그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을 배제하고 “번식의 정치(the politics of breeding)”에(Rob. Boddice, *The Science of Sympathy : Morality, Evolution, and Victorian Civilization*,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6, p.115.)가 수행된 결과였다.

99) 중독환자가 낳은 미감아(未感兒)를 집단 수용하자는 의견은 “그 父母가 中毒者라고 해서 이 애를 別途로 未感兒施設이다 해서 ‘레텔’을 붙여가지고 社會的인 ‘핸디캡’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보사부차관 강봉수의 견해 표명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중독자의 자녀를 집단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국회의원에 의해 제출되었던 점으로 볼 때, 당대 재건 이데올로그들이 마약중독자를 비롯한 이들의 가족을 구호하는 것보다는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데 급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업자, 밀수업자, 밀매업자, 중개업자, 부정의료업자들과¹⁰⁰⁾ 같은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로 아편중독자 역시 단속되었다. 1957년에 마약법 제정 당시¹⁰¹⁾ 논의의 중점도 마약중독자의 치료보다는 범죄 행각의 단속에 있었다.¹⁰²⁾ 당시 법률이 “마약중독자를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취급”했기¹⁰³⁾ 때문에 마약중독자 중 일부는 “마약사범구형기준”을 따라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구형 받을 수 있었다.

마약중독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질타하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부분의 마약중독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사회적 냉대”에¹⁰⁴⁾ 따른 “수치심”을 느꼈다. “屈辱感 罪惡感으로 사람을 기피”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는 중독자들의 비율 역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를 좀먹고 人類를 害”한다는¹⁰⁵⁾ 비난은 전후 남한사회에서 계속되었다. 마약중독자들의 신체와 정신 모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마약중독자들 개인만이 갱생하지 못하는 의지박약한 인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마약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요원한 상황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제의 논리만이 득세했다.

100) 『麻藥團東에는 密輸路封鎖만이捷徑』, 『경향신문』, 1958.3.26.

101) 『餘滴』, 『경향신문』, 1957.5.7.

102) 제3대 국회 제24회 제1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7.4.2., 11면. 국회에 상정된 마약법 초안에는 제47조(마약중독의 단속) “마약의 중독으로 인하여 자제심을 상실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조항과 제50조(마약중독자의 강제수용) “마약중독자를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시되었다. 이후 1958년 3월에 마약환자가 최초로 구속 송청되었다. (『治療患者 처음으로 10名拘束送廳 “앞으로는모조리” 警察서阿片中毒者에 硬措置』, 『동아일보』, 1958.3.28.)

103) 李海英, 앞의 글, 240면.

104) 1964년에 행해진 도시병원에 수용된 마약중독자 84명에 대한 사회학 연구조사를 진행한 연구자는 “離毒한 후에도 사회는 그들을 ‘阿片쟁이’라는 낙인을 찍어 백안시키고 그들을 따듯하게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中毒됐다가 그것을 끊었을 당시의 결의와 각오를 완전히 망각하고 家庭의 절실한 기대와 희망을 배반하면서 또다시 마약을 맞게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李海英, 앞의 글, 248면.)

105) 제6대 국회 제54회 제6차,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1966.2.7., 6면.

진후에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당위는 마약중독자들을 언제 가해할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으로, 대중의 건강과 위생적 환경을 위협하는 불결한 오염원으로, 궤멸해야 할 이데올로기적인 적으로 혹은 비정상성을 유전할 수 있는 열등한 자로 규정하는 일련의 타자화를 동반했다. 마약중독자를 거세해 생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이들의 생명을 제거해야 한다는 발상은 당대의 재건 담론이 생명 정치와 죽음의 정치를 수반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마약중독자가 된다는 것은 재건의 서사로부터 나오되었음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당대의 문학은 재건 담론에 동조해 마약중독자들을 타자화하고 비국민화하는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 혹은 이들을 위한 해방의 상상력을 제시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었다.

3. 정비석 소설의 아편중독자 재현에 나타난 (무)의식

1) 폭력적 배제의 승인 — 「女罪囚의 手記」

정비석의 경우 그의 소설 「女罪囚의 手記」(1957)에서¹⁰⁶ 마약중독자를 빨갱이 취급하거나 죄악시하지 않고 일련의 서사를 부여했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재건 이데올로기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텍스트의 면면에서 당대의 재건 담론과 조용해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마약중독자들을 타자화하는 지점이 포착된다.

「女罪囚의 手記」는 아편중독자를 살해한 아내가 쓴 수기를 어느 변호사로부터 전해 받아 소설가 '나'가 읽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현직에 있던 판사가 살해자의 아내에게 10년을 구형하고 죄책감에 직을 그만두었

106) 향후 이 절에서 이 작품을 인용할 시에는 가독성을 위해 괄호 안에 면수만을 표기한다.

다는 소식을 ‘나’는 듣는다. 수기에는 아내가 아편중독자 남편을 살해하기 까지의 경위가 제시된다. 액자내부의 서사에 삽입된 수기의 내용은 살해를 당한 아편중독자가 아니라 그를 살해한 아내의 시각에서 쓰인다. 수기는 아편굴에서 돌아온 남편이 자신에게서 아편값을 뜯어가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몽둥이로 내려쳐 그를 살해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아내의 입장에서 묘사된다. 마지막 부분에는 “남편을 죽이기 위한 행위였다 기보다는, 남편에게 최후의 각성을 주기 위한 기막히는 채찍”이었다는(160-161) 아내의 시각이 드러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본부살해의 독부라는 죄명”에 억울함을 느끼며 “재판장님께서만은 제 사정을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싶”다는 내용으로 수기는 마무리된다. 아편중독자의 아내가 느끼는 속죄의식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녀는 자신의 살인 행위를 뉘우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아편중독자의 내면이 아닌, 아편중독자를 살해한 아내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서술된다. 판사였던 자는 그녀에게 10년형을 구형한 후로 가책감에 시달려 변호사로 전업했다고 밝힌다. 수기를 읽은 소설가 ‘나’는 이 수기의 주인공을 보기 드문 정숙한 부인이라고 생각”한다고(162) 말하며 그녀의 입장에 동조한다.

나도 문제의 수기책을 손에 든 채 라일락꽃을 내다보며 꽃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마치 라일락꽃 향기가 그 여자의 정신에서 풍겨 오는 그윽한 향기인 듯한 착각조차 느끼면서.(163)

작품의 결말에 해당하는 위 인용문에 제시되어 있듯이 변호사와 ‘나’는 고통에 시달리다 살해하게 된 마약중독자의 아내에게 깊은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아편중독에 시달리다 맞아 죽은 아편중독자 남편에 대해 따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는다. 대화에서 아편중독자의 죽음이라는 이슈는 논

의선상에서 제외된다. 아편중독자의 죽음은 아편중독자의 아내가 겪었을 고통보다 가벼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남편을 살해하게 된 여성에 대한 과잉된 찬사는 마약중독자들을 극단적인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당대 재건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 인식의 결과다. “학질 환자처럼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콧물을 줄줄 흘리”는(156) 마약중독자의 신체는 우발적인 살해자 아내의 “정신”을(163) 통해 은폐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배제의 (무)의식은 마약중독자를 사회로부터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던 당대 재건 담론에 의해 파생된 것이다.

정비석의 「女罪囚의 手記」는 아편중독자에 대한 살해를 두둔하고 폭력을 승인함으로써 마약중독자들을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문화 정치를 수행한다. 이 서사에서 마약중독자는 사회적 효용을 지니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이자 정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격하된다. 이렇듯 아편중독자에 대한 폭력적인 살해를 승인하는 이면에 작가 자신이 지니고 있던 반공주의 사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산주의에 의해 아편중독이 전파되었다고 생각했던 당대의 특성상 아편중독자를 척결함으로써 공산주의를 박멸할 수 있다는 내적 논리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2) 반공적 동정의 강제 — 『人間失格』

1958년에 정비석은 서평을 통해 고아가 되어 부랑아로, 소매치기 소년으로 전전하다 마침내는 아편중독자가 되었던 김성필의 수기 『生— 없는少年』을¹⁰⁷⁾ 읽고 받았던 감명을 전한 바 있다.¹⁰⁸⁾ 이 책을 일컬어 정비

107) 김성필, 『生— 없는少年 : 어느 孤兒의 手記』, 女苑社, 1958. 김성필의 자전적 수기인 『生— 없는少年』에는 고아가 된 후에 무작정 상경해 부랑아로 전전하며 소매치기로 일하다 마약중독자까지 되었던 그의 일대기가 기술되어 있다. 수기의 내용에 따르면, 편부 슬하에서 자

석은 “嚴肅한 生의 絶叫”라고 고평하기도 했다. 이러한 독서체험의 영향인지 「女罪囚의 手記」 이후에 발표한 『人間失格』에서¹⁰⁹⁾ 그는 아편중독자를 향한 동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런데 『人間失格』에서 아편중독자 한기원은 6·25 전상자(戰傷者)로 재현된다. 제대군인인 한기원은 전쟁으로 인해 생식기를 절단 당하는 부상을 당하고 성불구자가 된다. 성적 열등감에 빠져 있던 그는 아내 복영을 구타하는 폭력적 인물로 변한다. 의처증에 시달리던 복영이 가출해 정부(情夫)인 심정호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자 그는 회사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실직자가 된다. 기원은 남겨진 아이 역시 돌보지 못해 고아원에 맡긴다. 중국에 그는 마약중독자가 되어 길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일련의 서사를 통해 한기원이 마약중독자가 되는 과정은 전쟁영웅의 파국으로 의미화된다. 이 소설은 마약중독자에게 상이군인이라는 내러티브를 부여한다.

『人間失格』에서 한기원은 신체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지인을 따라 병원에 들렀다 아편주사를 맞고 아편중독자가 된다. 「麻藥에의 誘引」이라는 소제목 하에 서술된 부분에는 당시 마약중독자들이 자의와 무관하게 아편중독으로 유인되기 쉬웠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일수록 이러한 유혹에 취약했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삽화가 등장한다.

라던 김성필은 부친의 훗카이드 강제징용으로 인해 고아가 된 후 무작정 상경한다. 그는 고아원에 입소했으나 그곳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탈출해 부랑아가 된다. 걸식을 하던 중 왕초에게 붙들린 그는 쓰리꾼(소매치기)로 활동하기도 한다. 미군부대 양공주들의 매춘 행위를 알선하는 펌프(pimp)로 일하게 된 그는 마약을 접한다. 마약중독자가 되었을 당시에 대한 그의 심경에 대한 서술에는 당대 사회를 향한 분노가 나타난다. 어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돌보아주는 이가 있었다라면 자신이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호소한다. 이 수기의 제사 역시 “이 이상 成人社會는 자라는 世代에게 비열한 꼴을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이다.(위의 글, 12면.) 그의 수기에는 사회적 존엄을 허락하지 않는 제견시대의 남한사회에 대한 저항적 인식이 나타난다.

108) 정비석, 「金成弼 著 生日없는少年 (一名어느孤兒의手記)」, 『경향신문』, 1958.6.14.

109) 향후 이 절에서 이 작품을 인용할 시에는 가독성을 위해 관례를 따라 괄호 안에 면수만을 표기한다.

한 기원은 어쩐지 모두가 이상스러웠다. 서소문동 일대는 옛날부터 아편소굴(阿片巢窟)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이 병원에 드나드는 환자들은 누구나 주사만 한 대씩 맞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 병원이야말로 아편중독자만을 상대로 하는 마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또하나의 의심스러운 것은, 옛친구인 성 만식의 거짓말이었다. 성 만식은 아까 돈 오백환을 꾸어달라고 할 때, 분명히 교통비로 쓰겠노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돈 오백환을 의사에게 주고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성만식에도 아편중독자임이 틀림없었다.

한 기원은 거기까지 깨닫고 나자, 어쩐지 등골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현실 생활이 너무도 비참했기 때문에, '제에기랄, 아편중독자가 되면 어떻단 말이냐! 차라리 모든 번민을 잊어버리기 위해, 그 편이 좋을지도 모를 거야!'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276-277)

작중에서 한기원은 스스로를 포기해 아편중독자가 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아편중독자가 되어 죽음을 맞이한 한기원의 사망 소식은 가십의 형태로 신문기사에 기재된다. 이때 기사에서 한기원이 625 참전 군인이었다는 점이 비중 있게 보도된다. 기사는 그를 참전 용사였으나 마약중독자가 되어 사망한 그를 동정의 대상으로 배치한다.

서울 거리의 한구석에서 추위에 떨다 못해 저승으로 가버린 젊은 사나이—그의 이름은 한 기원이었다. 한 군은 이북 출신으로 일찍이 삼팔선을 넘어와, 군대에 입대했다. 그 후 일선으로 다니며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다가, 스물 세 살 때에 중위로서 후방에 배속되자 김 모라는 여성과 백년가약의 화촉을 밝혔다. 그리하여 한때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어린 아이까지 남매가 생겼는데, 결혼한 지 사년째 되던 해에 휴전협정을 앞두고 전투가 다시 치참가열해지는 바람에, 한 대위는 사랑하는 처자를 후방

에 남겨둔 채 또다시 일선 중대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한 대위는 명실 공히 일선에 있어서는 명지휘관이었다. 그가 지휘하는 중대는 어느 전투에 있어서나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토록 전공이 혁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커다란 비극이 찾아왔으니, 그것은 그가 어떤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었다.(326-327)

기사에는 그가 참전군인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있다. 기사는 계속해서 한기원이 부상을 입고 성불구가 되어 아내가 가출하게 되어 그가 마약중독자가 된 경위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때 그가 참전용사였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언급된다. “그는 스스로 타락의 길을 밟아서, 마약중독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용맹무쌍했던 제대군인 한 대위는 가련하게도 거리에서 유리걸식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327-328) 서술이 그 예에 해당한다. 서술자는 기사문의 삽입을 통해 그가 과거 전쟁에 참전했던 자라는 점을 부각한다.

그런데 마약중독자가 되어 사망한 한기원에 대한 동정심에의 요청은 반공 이데올로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전후에도 전쟁으로 인한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며 결국 전상자가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반공적 위기의식을 부추긴다. 희생자가 된 전상자에 대한 동정심은 희망적인 비전보다는 전쟁의 혼란이 계속되고 냉전분단체제가 고착화되리라는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참전자를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상이군인에 대한 집단적 동정심이 부여된다. 『人間失格』의 마약중독자에게 가해지는 동정은 전상자를 향한 ‘반공적 동정’으로 굴절된다.

동정의 감정이 ‘반공적 동정’의 형태로 이데올로기화됨에 따라 상이군인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단죄하는 시각이 텍스트의 전면에 부각된다. 한기원의 죽음을 전하는 신문기사의 결말부에는 그를 버리고 떠난 아내를 비난하는 세간의 인식이 나타난다.

옛날에 그의 아내였던 김 모씨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부지간에는 성생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 못할 사실이지만, 그러나 김 모라는 여성이 이 사실을 안다면, 거리에서 불쌍하게 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조그만 무덤으로 화해버린 한 대위에게 한줄기 눈물을 아니 뿌릴 수가 없으리라.(327-328)

서술자가 비단 한기원의 아내 김복영이 비단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비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녀에 대한 단죄의 심층에 전상자를 모독한 여성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적인 인식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에게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버린 한 기원에게 속죄”해야(330) 한다는 당위가 부여된다.

사실상 한기원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마약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에 있다. 그러나 작중에서 마약중독자가 되어 사망하게 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복영이다. 그녀를 단죄하는 여론은 마약중독자의 아내 역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마약중독자의 미망인들에 대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전상자에게 집중된 ‘배타적 동정심’은 마약중독자의 미망인을 공감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한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동정심이 상이군인을 향한 ‘반공적 동정’으로 변모함에 따라 마약중독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미망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처벌적 여론이 횡행한다.

한편 복영의 정부인 심정호에게는 한기원의 자식을 떠맡아야 한다는 책무감이 주어진다. 심정호는 한기원의 자식을 키움으로써 그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심정호가 한기원을 향해 지니게 된 연민의 감정은 사회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함께 망우리 묘소로 찾아가, 한 기원씨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드려요.

그게 아마 우리들의 도리일 게요. 그리고 나서는 옥현이를 데리고 내려 옵시다. 당신이나 나나 이제는 돌아가신 한 기원씨께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옥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키워 나가도록 해야겠어.(329)

강제된 연민에 의해 아편중독자의 자녀가 받게 될 돌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실상 아편중독으로 사망한 자의 자녀들을 구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아편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개인의 도의심에 맡기는 방식은 아편중독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해결을 지연시킨다.

『人間失格』에서 정호가 기원의 아이를 맡아 기르려고 하는 장면에는 특정 개인의 희생자의식을 부추기며 전체 사회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도의재건(道義再建) 담론의 문제점이 반영되어 있다. 재건 이데올로기에 따라 국민들의 품성을 규정하고자 했던 도의 담론의 영향력은 『人間失格』에 나타나는 동정의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전후의 재건 이데올로기는 국가에 대한 책임론을 말하는 대신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품성을 국민들에게 강제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체제 개선을 주문하기보다 개인의 도의심 부족을 탓하는 전략이 득세했던 것이다.

복영은 한기원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정호는 그의 자식들을 부양해야 할 과도한 책임을 요구받지만 이들의 내밀한 마음은 표현되지 않는다.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한 반공적 동정심으로 인해 진정한 내면이 형성되지 못한 탓이다. 텍스트는 반공적 동정심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한다. ‘반공적 동정’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마약중독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고 마약중독자들을 구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축소된다.

4. 비가시화 되는 마약중독자(들)의 목소리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당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마약 중독자가 보호 받지 못한 채 당대의 재건 담론에 의해 사회적으로 타자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6·25전쟁은 아편중독자를 양산하는 직접적인 계기였고, 전후의 혼란 속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혹은 사회의 보호망 부재로 인해 아편중독자가 되었다. 국가재건을 위해 일차적으로 가정재건을 이룩해야 한다는 구호가 연발되던 시점에 아편중독자들은 재건의 희생꾼으로 여겨졌다. 일부는 치료의 관점에서 아편중독 문제에 접근했지만, 치료 인프라는 부족했다. 전후 사회는 마약중독자와 관련한 뉴스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전파했다. 마약중독자들의 갱생담은 마약중독의 문제를 개인의 초인적인 의지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아편중독자에 대한 신문 매체의 보도 방식은 범죄 사실에 집중되었다. 대다수 대중들은 이들을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기 쉬웠다. 마약중독자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감염병의 전파자로 오인 받기도 했다. 레드 콤플렉스가 만연한 남한 사회에서 아편중독자들은 반공 담론에 의해 공산화된 적으로 표상되었다. 1960년대에 정신위생학이 널리 보급되고 정신위생 담론이 조성되며 마약중독자들은 정신병 환자로 분류되었다. 재건 이데올로그들은 정신의학적 권력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마약중독자들을 타자화했다. 마약법에 의해 마약중독자들은 마약을 밀조하고 판매한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처벌받았다. 전후 남한사회는 아편중독자를 갱생시키려는 노력보다 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압력을 더욱 강하게 생산했다. 아편중독에 빠진 이들은 깊은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시중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상황이 1950-60년대 내내 반복되었다. 국가가 민족의 이름으로 강한 구속을 발휘할 때 마약중독들에게 오히려 국가와 민족은 부재했다. 아편중독자로부터

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제의 논리는 사실상 아편중독자를 비국민화하며 죽음의 정치에 복무했다.

정비석의 「女罪囚의 手記」와 『人間失格』는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문제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텍스트다. 그는 아편중독자를 소설의 소재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일방적으로 단죄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내러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의 소설들이 당대 재건 이데올로기의 압력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

「女罪囚의 手記」는 아편중독자를 아내로부터 살해를 당해도 마땅한 존재로 재현한다. 아편중독자를 살해한 아내의 수기를 읽은 '나'는 그녀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그녀를 추앙한다. 소설은 아편중독자를 재건공동체로부터 축출하려는 배제의 (무)의식을 나타낸다. 『人間失格』의 한기원은 마약중독자가 아닌, 상이군인이라는 한계 내에서 동정의 대상이 된다. 한기원을 향한 반공적 동정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혐오를 은폐시킨 채 참전용사를 추앙하게 만든다. '반공적 동정'의 감정은 전후 재건 담론에 따른 네이션 형성의 기저를 이룬다.

정비석의 소설에서 마약중독자들은 전후재건, 국가재건, 민족재건, 경제재건, 가정재건, 도의재건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간으로 이들을 재현하는 동정의 시선 아래서만 한정적인 내러티브를 부여 받는다. 자신들을 재건의 서사에 부합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는 동정적 프레임의 구속에 마약중독자들은 있었다. 그 속에서 마약중독자들이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 살아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확보하기란 힘들었다. 그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들을 향한 동정은 사실상 은폐된 혐오이기 쉬웠다.

만약 작가가 자신의 문학 텍스트를 통해 마약중독자를 모두에게 주체로서 보이도록 현시했다면 타자들은 그의 의도대로 온전한 지위를 획득하고 각각의 작품들을 경유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약중독자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공적 배제와 동정의 문화정치는 이들의 목살된 내면과 실추된 존엄을 복구해줄 수는 없

었다. 폭력적 배제의 승인과 반공적 동정의 강제를 통해 마약중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적 상상력을 제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반공적 배제와 동정의 구조 속에서 마약중독자들은 균일한 네이션 형성을 방해하는 대한민국 재건의 타자로 간주되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동리 외 4명 편, 『韓國代表短篇文學全集 18 : 現役作家篇』, 正韓出版社, 1975.
김성필, 『生一 없는少年 : 어느孤兒의手記』, 女苑社, 1958.
정비석, 『鄭飛石短篇集 : 사랑하는사람들』, 女苑社, 1957.
정비석, 『人間失格』, 正音社, 1962.
정비석 저, 김현주 편, 『정비석 문학 선집 1-3 : 단편소설』, 소명출판, 2013.
정비석 저, 추선진 편, 『자유부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3.
韓國켄클럽 편, 『사랑 그眞實과孤獨』, 韓振出版社, 1978.
『경향신문』, 『동아일보』, 『부산일보』, 『세대』, 『조선일보』

2. 단행본

-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문학사와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손유경, 『고통과 동정 :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2012
이명호 외 8명, 『감정의 지도 그리기 : 근대/후기 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 소명출판, 2015.
이하나, 『‘대한민국’, 재건의 시대(1948~1968)』, 푸른역사, 2013.
이하나, 『국가와 영화 : 1950~60년대 ‘대한민국’의 문화재건과 영화』, 혜안, 2013.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인문학용어대사전』, 국학자료원, 2018.
레이먼드 윌리엄스 저, 박만준 역,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미셸 푸코 저, 오토르망 역, 『정신의학의 권력』, 난장, 2014.
안토니오 그람시 저, 이상훈 역, 『그람시의 옥중수고Ⅱ』, 거름, 1993.
Boddice, Rob., *The science of sympathy : morality, evolution, and Victorian civilization*,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6.
Edgeworth, F. Y., *Mathematical Psychics*, London : Kegan Paul, 1881.
Higgins, John, *Raymond Williams : Literature, Marxism and Cultural materialism*, London : Routledge, 1999.
Schliesser, Eric, *Sympathy : A History*, ed. by Eric Schliesser.,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Ngai, Sianne, *Ugly Feelings*,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eart, Sandra J., and David M. Levy, *The "Vanity of the Philosopher" : From Equality to Hierarchy in Post-Classical Economic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Williams, Raymond, *Maxism and Litera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Williams, Raymond, *Politics and Letters : Interviews with New Left Review*, London : New Left Books, 1979.

3. 논문

김주리, 「일제강점기 소설 속 하층민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 모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87-216면.

김주리, 「아편굴의 조선인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아편 밀매업자 표상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151-179면.

김주리, 「주의자와 중독자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지식인 중독자의 표상」, 『인문학논총』 43,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31-60면.

김주리, 「1950년대 혐오의 서사와 헤테로토피아의 기획 - 정비석의 『민주어죽』 고찰」, 『人文論叢』 78(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293-327면.

金昌銑, 「韓國麻藥中毒者의 史的考察」, 『신경정신의학』 2(1),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63, 70-75면.

김학균, 「『사랑과 죄』에 나타난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국제어문』 54, 국제어문학회, 2012, 365-387면.

徐高丙·林漢鍾, 「서울市內 麻藥中毒者間에 流行하는 熱帶熱 및 四日熱」, 『서울대학교 論文集』 8, 서울대학교, 1959, 213-220면.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 현경준의 『유맹』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사이(SAI)』 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263-289면.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 -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2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139-165면.

이춘애, 「매독을 합병한 마약중독자 - 증상, 치료, 간호 -」, 『대한간호』 3(2), 대한간호협회, 1964, 66-74면.

임경석, 「마르쿠제의 유토피아적 인간해방」, 『시민인문학』 28,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190-223면.

임지연, 「1960-70년대 한국 정신의학 담론 연구 - 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 『의사학』 56, 대한의사학회, 2017, 181-214면.

장은영, 「전쟁문학론의 전개와 폭력의 내면화 - 식민지 말과 한국전쟁기 문학론을

중심으로 -], 『우리文學研究』 66, 우리문학회, 2020, 367-406면.

조석연, 「해방 이후의 마약문제와 사회적 인식 - 해방과 정부수립 초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08, 한국사학회, 2012, 301-342면.

Wiggins, Ellwood, "Cold War Compassion : The Politics of Pity in Tom Stoppard's Neutral Ground and Heiner Müller's Philoktet," *Literatur für Leser*, 4-15, 2015, pp.255-269.

4. 디지털 자료

제3대 국회 제24회 제1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7.4.2.

제6대 국회 제40회 제11차,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1964.2.22.

제6대 국회 제53회 제9차,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1965.11.19.

제6대 국회 제54회 제6차,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1966.2.7.

「국내 마약류의 역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antidrug.drugfree.or.kr/page/?mIdx=185>>, 최종접속일 : 2023.7.13.

<Abstract>

The Other of Reconstruction, Drug Addicts
– Cultural Politics of Violent Exclusion and Anti-communist
Compassion in Jeong Bi-Seok's Novels

Seon, Minseo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politics of exclusion and compassion for drug addicts carried out by the post-war reconstruction discourse. In Jeong Bi-Seok's novel "The Handicraft of a Female Prisoner", the narrator sympathizes with the injustice of the person who killed him rather than the suffering of the drug addict who was murdered. In "No Longer Human", drug addicts are represented as war-wounded individuals who die while indulging in opium addiction because they cannot overcome the scars of the Korean War. In the anti-communist exclusion and compassion, drug addicts were regarded as the other by the discourse of reconstruction.

Key words : Post Korean War, Discourse of Reconstruction, Violent Exclusion, Anti-communist Compassion, Cultural Politics, Drug Addicts, Jeong Bi-Seok, "The Handicraft of a Female Prisoner", *No Longer Human*

투 고 일 : 2023년 8월 21일

심 사 일 :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9월 18일